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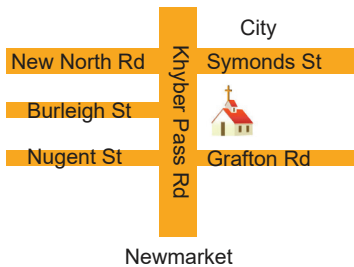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오늘은 2017년 감사 주일입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지수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10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 오후 3시 15분부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익한 월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암으로 투병중인 김광영 집사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뇌졸중 치료중인 경덕현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5. 신앙은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교회 여러 분야를 함께 섬길 성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 신앙생활 안내를 위한 교회요람을 준비합니다. 주소, 전화번호등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 오늘 점심으로 섬겨준 주방봉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8.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 11:2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주일 2부예배	주일 PM 1:00	유 아 부	주일 PM 1:00
청년예배	주일 PM 3:15	아 동 부	주일 PM 1: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청소년부	주일 PM 1:00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2017년 10월 29일 감사주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신6:4-9)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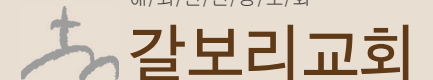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해/외/한/인/장/로/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138:1-2
◎ 찬 송	큰 영화로신 주 35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대 표 기 도	김철재 집사
성 경 봉 독	욥기1:1-5, 20-22
찬양대 찬양	주님의 크신 은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그래도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태한 목사
찬 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홍진술 자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봉희권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6:1-15
설 교	오병이어의 기적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524장
주 기 도	다같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일지

금요저녁기도회: 11월 10일(금요일)
권사기도회: 11월 26일(주일)
선교회 주관 수요예배: 11월 29일(수요일)

11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이광희A/김현주
새신자안내: 이정인/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재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신장우 집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이예찬 형제
11월 8일 수요: 정혜숙 권사
11월 8일 애찬: 심경순 집사
11월 12일 주일: 박병민 장로
11월 12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새로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2.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3. 영육으로 지친 성도에게 회복이,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에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오이 발일을 하기 위해 떠났고 이탈리아로 갔던 루다리 마을 집시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고 있어 마을과 교회에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역소식

1. **마을 전도집회**- 해마다 각 루다리 마을에 전도집회를 통해 교회 부흥과 아이들 사역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성경캠프**-7세~12세 아동들과 13~ 20세 청소년 등 70명 아이들이 3박 4일 함께 합숙하며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 성경암송, 그룹성경 읽기, 등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시킵니다. 이제는 각 마을 교회 아이들이 캠프에서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성경암송을 가르쳐 주고 잘 어울립니다. 성경캠프 기간 힘은 들어도 어린이 전도에 열매가 있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3.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립니다.** 두미레쉬티 마을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중 현재 네오, 조르지아 마리안, 치프리안, 아디, 블라드 등 6명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전에는 상상 할 수 없던 일이지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에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부모들로 인해 지금까지 루다리 사람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 9월 네오와 마리안은 루다리마을에서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특히 네오는 올해 대입 학위 Bacalaureat 시험에서 10점 만점에 9.5를 받아 아르제쉬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루다리 마을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오는 초등학교에서 4학년까지 다녔으나 교사가 잘 오지 않아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하였고, 알베쉬티 5학년 들어 갔을 때는 거의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였지만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암송은 제일 잘하고 아주 많이 암송하였습니다. 그동안 네오가 루다리, 포커이치(개신교인)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으나 예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오는 앞으로 교회 사역도 하고, 경찰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루다리 집시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2. 네오가 진학하여 학업에 열중하도록.